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정기회의(4차) 회의록

일시	2023년 9월 15일 (16:00~17:30)	장소	시청 상황실	회의 구분	(정기, 임시)
참석 위원 (14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주요 내용	■ 입지 선정 절차 등 논의 - 입지후보지 현장 확인 필요 → 빠른 시일 내 일정 조율하여 현장 방문 - 입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재논의 필요 → 여수시에서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 절차 및 방법 (안) 제시				

□ 위원별 주요 회의록

【○○○ 위원】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입지타당성 조사의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후보지 별 현장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보고 후 결과 공고를 하면 결과에 대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현장 검토 없이 결정하는 것은 부실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을 가보고 나서 결정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업체에서 최종보고를 하면 각 후보지에 대한 점수는 저희가 점수를 주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후보지 점수는 3차 회의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용역사에서 부여하여 최종보고에서 후보지별 점수에 대해 결과 보고를 할 것이고, 이 결과를 폐촉법에 따라서 20일 간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15일 간 주민 의견 접수를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원】

그렇다면 용역사에서 평가한 점수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것인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나요?

【자원시설팀장】

용역사에서 1순위를 A지역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1순위로 할 지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회에서 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위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까지 진행했던 회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진행했던 회의들의 회의록 배포를 요청드리고, 용역사에서 평가한 배점이 1순위 2순위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순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심의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용역사에서는 후보지 배점에 대한 안만 제시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지 않고 평가를 끝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현장도 가보고, 선정 방법에 대하여도 심의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저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사의 후보지 평가 결과만 보고 승인하면 끝나버리기 보다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 방문도 해보고 선정 방식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

정회를 좀 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도 중요하고,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지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용역사 평가 결과를 오늘 보고 받고 공고를 해 버리면 입지 선정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두 후보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명확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전 회의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일단 우리가 후보지 배점 기준을 논의하여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기관인 도화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화에서 평가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을 때, 그 평가의 배점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재평가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위원회 회의 3차를 진행하면서 관련한 절차를 완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회의 때 각 대상지의 어떤 유리한 점이나 여러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배점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목마다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고, 그래서 용역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각 항목마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후보지 현장을 가봐야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번 후보지에 가보고 필요하면 용역사의 설명도 들어본 뒤에 평가된 그런 항목들을 용역사가 확실하게 평가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에 대한 공고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저도 오늘 용역사의 후보지 평가 점수 발표를 듣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위원】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 위원】

현장 방문을 초기부터 논의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후보지 평가는 두 후보지를 놓고 우리가 배점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1차, 2차, 3차 회의들의 회의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왔는지 같이 보고 정리를 해나가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 정회 >

【위원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후보지 현장 방문 건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 나갈 건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논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회 시간에 실무진들과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현장은 한번 방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용역사와 얘기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용역 결과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용역사에서 현재 평가된 내용은 그대로 보고가 되고, 용역 결과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승인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에 대한 승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평가 점수를 배점하게 되어 평가 결과가 공고된 용역 결과와 뒤바뀌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용역사의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용역사에서 평가한 그 내용의 신뢰도를 같이 한번 평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 부 승인을 해서 만약 용역사의 평가 내용이 승인이 안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평가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고 시점입니다. 공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이 결과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위원】

용역 결과는 공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용역사에서 제시한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른 결과를 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공고가 되면 그 지역에서는 이미 그것을 결정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만약에 공고하고 나서 입지 선정이 바뀌어버리면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공고 시점을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아예 결정을 내버리고 공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오늘 결정이 나면 공고 기간이 20일이고, 그 다음 의견 제출 기간이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갖는데, 주민 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우린 못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현재 후보자들이 조건이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10월 18일까지인데, 현장을 한번 갔다오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두 후보지 모두 아니라고 판단하면 삼일동에서 2차 후보지를 시에다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지금 두 개 후보지를 용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현장도 가보고, 절차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깊게 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간다고 해도 이미 용역은 결과가 끝나 점수가 이미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점수 반영을 못한다고 한다면, 현장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용역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 위원】

순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민원 관계 때문에 과연 그 부지에 소각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하면, 지금 안되는 쪽으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삼일동이나 봉두에서도 지금 결정되어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면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와서 이 부지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결정을 하고 입지를 선정하든지 안 맞으면 재공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 주민대표님들께서 제안했던 입지를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 절차에서 갑작스럽게 변경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알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역사에서 두 부지를 조사를 했더니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공고를 하고 의견 제시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서를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반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후보지 재공고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유를 듣고 싶고, 안되면 삼일동에서 이것을 포기했을 때는 봉두가 선정이 되는 것인지 재논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도화를 저는 99%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드린 것이 공고하는 순간 그것이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했을 때 논란이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되고 나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에서 입지 후보지를 바꾼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 후보지가 들어왔고, 만약 이것이 처음 출발선으로 가려면 도화에서 봤을 때 삼일동과 봉두 두 개 부지 모두 타당하지 않다 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데, 갑자기 후보지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대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를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자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입지 선정 절차 같은 경우는 행정, 법적인 절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

오늘 많은 논쟁에 대한 부분 중 하나가 후보지 평가 결과를 보고받으면 용역이 끝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공표가 되는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가 항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시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내서 점수가 나오면 설치기관에서는 이 결과를 열람 공고하는 것입니다.

【○○○ 위원】

용역 결과 내용과 다르게 입지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네, 경남 하동과 제주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최적 후보지 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1, 2, 3등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답은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지 안에 도출했던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하동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위원분들께서 최대한 주거지역과 먼 곳으로 입지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셔서 위원분들이 가, 부로 따져서 입지 선정을 하셨습니다. 제주 사례도 후보지들이 반대의 여론이 많았었는데, 6개의 후보지 중에 가장 점수가 낮았던 후보지가 어촌계, 부녀회 등에서 시장님과 협약하고 세레모니도 하면서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입지 선정이 되어서 저희 용역 결과 공고와 다릅니다.

【○○○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입지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평가하는 배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의 평가에 우리들의 어떤 결정도 들어갔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입지 선정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첫 번째,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방문하자. 두 번째, 여수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역할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용역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용역사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선정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만약 용역사에서 평가한 점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점수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다음 회의에서 제시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